

28 February 2016 SERMON LENT 3

Is(이사야)55:1-9, 1 Cor(고린도전서) 10:1-13, Lk(누가복음)13:1-9

한 주 전 저는 오페라 하우스에 앉아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게 향한 천장을 응시하며, 베토벤의 찬란한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인간창조력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그의 청각을 잃은 사람이 음악을 작곡한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듯 합니다. 그가 작곡한 음악은 그의 마음과 영혼의 귀로부터 적은 것 입니다. 인간창조력은 악기들을 개발하여,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꿈꿔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 입니다.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악기들을 연주했나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음악들을 우리가 그곳에 앉아서 우리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끝이 났을 때 우리는 더운 금요일 저녁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높은 건물로 둘러 쌓여 있는, Circular Quay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소유한 그것을 즐기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스러운 세상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상처와 파괴를 창조할 끔찍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리고 멀리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인간의 능력은 꽤 끔찍합니다 그 능력이 삶에 대항에서 격렬하게 사용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이 남을 돕고 치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 그리고 정보는 아주 자주 우리가 주인들이고 우리 자신 세상을 소유 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면 요즈음은 그것을 찾아 내기는 쉽습니다. 저는 7 월과 8 월에 나의 영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스코틀랜드에 the Mull of Kintyre 에서 있는 Ardrishaig 와 Skipness 사이를 여행 하는데 시간과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구글에서 약 20 초안에 그 답을 찾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도 살 수 있나요?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 그것은 정말 우리의 반응을 집중시키고

우리를 규정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접근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시험합니다: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받아야 하나요? 왜 세 명의 유치원 어린이들의 엄마인 착한 여인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부딪혀 죽어야만 하나요? 왜 평생을 열심히 일한 남성이 은퇴한 한 달 후 장애를 초래할 중풍에 걸리는 것일까요?

왜 지진이 수 백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삶과 가치가 점점 왜곡되어서 그들이 테러리스트 조직에 참여하여 남성들과, 여성들과,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일요일,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 후에 저의 남편에게 피지에 발생한 허리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것과 비슷한 많은 다양한 이야기에 관해서 들었을 것 입니다. 사람은 만약 다른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것에 대하여 응답할 때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을 직접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런 종류의 신학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정의된 기준 안에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어떤 틀들 안에서 이야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이미지들에 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랄 때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리케인, 쓰나미, 심지어 교통사고들을 인간의 사악함으로 그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동안에 누가복음을 읽으며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폭력, 살인, 빌라도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 관하여 듣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형벌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의미한 죽음을 위한 다른 측면을 추가합니다 -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짐으로 죽습니다, 아마 조잡한 솜씨 또는 무시의 결과로도요.

우리는 이 내용의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꽤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걱정에 관해, 심판에 관해, 준비되고 있는 것에 관해 그리고 주인이 올 시기를 위한 준비에 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가정 안에 분열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시기의 상징들을 읽습니다. 쉽고 편안한 문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오늘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있나요? 누가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복음서 보다 도,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특성입니다.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인 들의 죽음과 사고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은 이 사람들의 어떠한 죄에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와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무화가 나무는 즉시 쓸모 없다고 포기 되지는 않았고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한 폭력적인 처벌을 보내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생각은 정의의 어떤 저울로서 우리의 무게를 재고 있고 어떤 이의 죄의 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우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보내거나 또는 버린다는 것이 단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나는 말씀인 아름다운 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만큼 나쁘지 않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 우리모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무화가 나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비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삶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재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은 그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이 글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놓여져 있는 분명한 언급으로서 그가 빌라도를 이야기함으로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부당한 희생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필요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속죄의 신학까지 이야기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본아 온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아픔, 상실, 죽음, 그리고 부당함, 인간 경험의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과 분명히 초대 교회에게는 어떤 면에서 고통은 지금 현재의 태도들과는 다르게 기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일탈로서 보는지, 처벌 또는 단지 삶의 부분으로 보는지,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것 들과 말도 안 되는 듯한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웨스트미드에있는 어린이병원에 일하시는 목사님이 얼굴을 제외하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어린아이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도 그 상황을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그들은 아침에는 성경을 같이 읽고 저녁에는 기도도 같이하는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답이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과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에서 욥기는 가장 오래된 말씀중의 하나 입니다. 욥기는 지혜의 글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압니다. 무고한 욥은 거의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아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의 일환으로 일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욥에게 믿음의 시험 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친구들이 와서, 침묵과 함께 그의 옆에 그냥 앉아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 칩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욥이 그의 죄를 인정하기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욥조차도 그의 상황에 대해 “왜”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인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상기 시키실 때까지 그의 진실성을 유지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 이해는 충분했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응답 없이 사는 것은 진정으로, 깊은 시험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한 찬송에 관하여 생각했을 때 히틀러에게 저항하고 히틀러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나찌에 의해 수감된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디이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 의해

적혀진 찬송을 찬양 할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그의 글은 통찰력으로 가득합니다. 찬송가(Together in song) 240 장입니다.

본회퍼는 기독교이해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나환자를 안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용서와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의 목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통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몹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간다고 본회퍼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에 대한 어떤 대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삶을 찾기 위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답들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도 할 수도 없고 신학적인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 일뿐이며 때때로 맹목적인 신앙으로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모두는 여기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아름다운 것을 창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저울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